

주요 내용

고유가 시대 개막의 영향과 과제

최근 에너지 소비 동향

- 국제 유가가 급등세임에도 불구하고 99년 1/4분기 중 국내 에너지 소비는 11.4%나 증가함으로써 경제 성장 속도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. 특히 비생산적인 가정·상업용 에너지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져 에너지 과소비를 주도

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

- (99년 중) 평균 원유 도입 단가가 16달러일 경우 소비자물가는 0.8%p 추가 상승이, 그리고 22.3억 달러의 경상수지 악화가 발생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은 0.5%p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
- (2000년 중) 유가 상승세 지속으로 평균 원유 도입 단가가 20달러까지 상승하면 소비자물가는 1.0%p 추가 상승이, 그리고 30.8억 달러의 경상수지 악화가 발생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은 0.8%p 감소가 전망됨

시사점 및 과제

- (시사점) 원유 도입의 70% 이상은 선물로 계약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의 악영향은 내년에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됨
- (과제)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을 최대한 조세부문에서 흡수하고, 기업은 에너지 절약 및 재활용 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함. 가계는 에너지 과소비 자제와 에너지 절약형 제품 선호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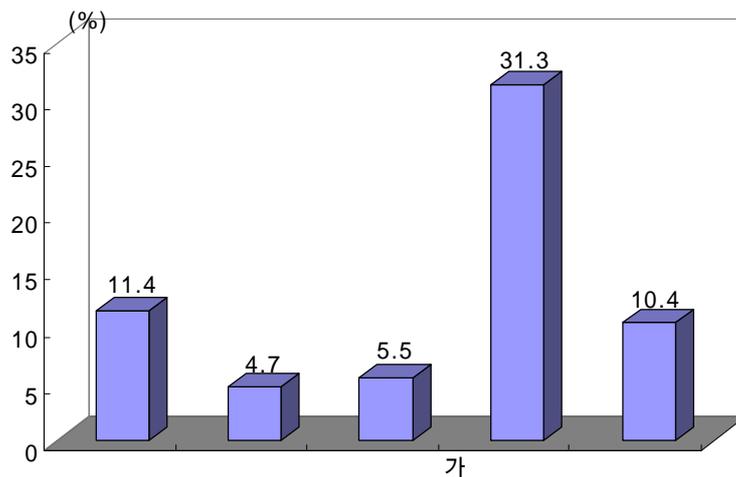
고유가 시대 개막의 영향과 과제

정 희 식

최근 에너지 소비 동향

- 국제 유가가 급등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너지 소비 증가세가 경제 성장률보다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- 99년 1/4분기 중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11.4%나 증가해 1/4분기 경제성장률 4.6%를 훨씬 상회함
- 주요 에너지원별로 비교해 보면 석유 제품의 소비가 1/4분기 중 11.5% 증가함으로써 LNG와 함께 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음
- 부문별로 볼 때 비생산적인 가정·상업용 에너지 소비가 31.3%나 증가해 에너지 과소비를 주도하는 것으로 조사됨
- 이는 자동차 내수 판매 및 이용 증가로 휘발유 등 석유 제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

< 99년 1/4분기 부문별 에너지 소비 증가율(전년동기대비) 비교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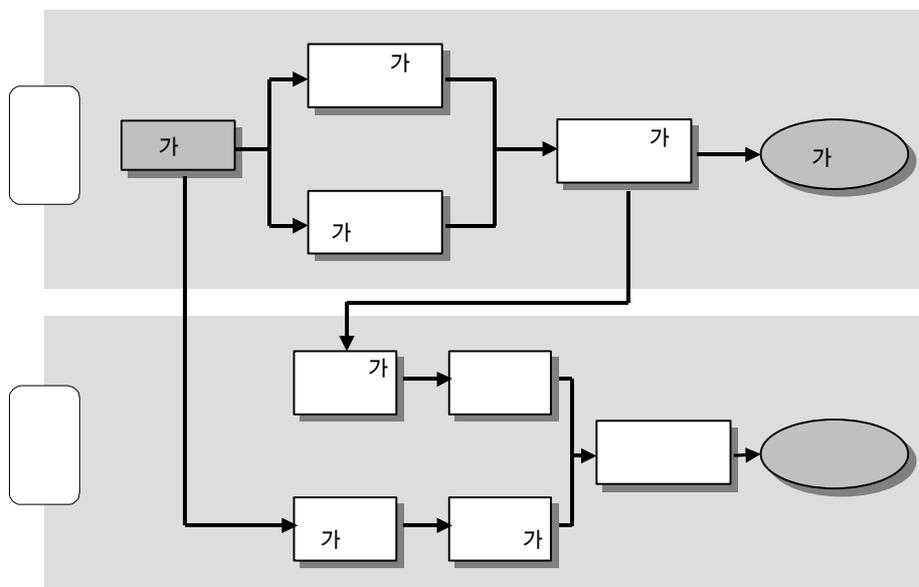
자료: 에너지경제연구원(99. 6), 「에너지통계월보」

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

● 분석 방법

-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효과와 수입 증가·수출 감소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함
- (물가 상승 효과) 유가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, 생산 원가도 증가시킴으로써 인플레이 압력이 발생하게 됨
 - 직접적으로는 원유 도입 단가 상승이 연료유, 전력, 가스 등 주요 에너지원의 가격을 인상시킴
 - 또 유가 상승은 나프타, 합성수지, 합성고무, 합성섬유 등 석유화학 관련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이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업종의 제조 원가를 증가시킴
 - 1995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농림업, 제조업, 서비스업 등의 에너지 비용 상승 효과와 생산 원가 상승 효과를 계산한 후, 이를 상품별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물가 상승 효과를 도출

< 유가 상승의 파급 경로 >



-
- (경제 성장률 둔화 효과) 원유 도입 단가 상승으로 인한 원유 수입액 증가와 수출 단가 인상으로 인한 수출 감소는 경제 성장세를 위축시킬 것임
 - 원유 도입 단가가 상승함으로써 그 인상분만큼 원유 수입액이 증가하게 되고, 생산 원가 상승으로 수출 단가가 인상되어 수출이 감소하게 됨
 - 이러한 수입 증가와 수출 감소는 경상수지 흑자 폭을 감소시켜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임
 - 원유 수입액 증가분은 예상 원유 도입 물량에 원유 도입 단가 상승분을 적용하고 재수출되는 석유제품을 제외¹⁾하여 계산
 - 수출 감소율은 생산 원가 상승률의 50%만 수출 단가 인상에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수출 가격 증가율에 제조업의 수출 가격 탄력성을 적용하여 산출
 - 경제 성장률 둔화 효과는 수입 증가와 수출 감소로 인한 경상수지 감소분을 95년 불변 가격으로 환산한 후, 95년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99년 예상 불변가격 GDP 대비 비중을 계산

● 분석 결과

- (1999년 중) 99년 평균 원유 도입 단가가 16달러일 경우, 소비자물가는 0.8%p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, 경제 성장률은 0.5%p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
 - 농축수산물과 공산품 등 상품 부문에서 0.5%p, 서비스 부문에서는 0.3%p의 물가 인상 압력이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원유 도입 단가 상승으로 19.8억 달러의 수입이 추가로 증가하고, 수출 단가 인상으로 2.5억 달러의 수출 감소가 이루어져 경상수지가 22.3억 달러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- (2000년 중) 2000년 평균 원유 도입 단가를 20달러로 가정할 때 소비자물가는 1.0%p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, 경제 성장률은 0.8%p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
 - 상품 부문에서는 0.6%p가, 서비스 부문에서는 0.4%p의 물가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
 - 수입은 원유 도입 단가 상승으로 25.8억 달러가 증가할 전망이고, 수출은 5억 달러 감소가 예상되어 경상수지는 30.8억 달러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

1) 과거 추이를 볼 때 원유 도입액의 30% 정도가 가공되어 재수출되는 것으로 조사됨.

< 유가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>

		1999	2000
소비자물가 상승		+0.8%p	+1.0%p
	상품 부문	+0.5%p	+0.6%p
	서비스 부문	+0.3%p	+0.4%p
경제성장률 둔화		-0.5%p	-0.8%p
	수입 증가	+19.8억 달러	+25.8억 달러
	수출 감소	-2.5억 달러	-5.0억 달러
	경상수지 악화	-22.3억 달러	-30.8억 달러

시사점 및 과제

- (시사점) 당분간 고유가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큰 타격이 우려됨
 - 원유 도입의 70% 이상을 선물로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
 - 특히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정도를 나타내는 에너지 소비 원단위(GDP 1단위당 최종에너지 소비량)가 98년 평균 0.42에서 99년 1/4분기 현재 0.49로 악화됨

- (과제)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부, 기업 및 가계의 다양한 대책이 요구됨
 - 정부는 에너지 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경기 회복세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휘발유,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상승 압력을 조세 부문에서 최대한 흡수하고, 기업들의 에너지 절약 설비 투자 유도를 위해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함
 - 기업은 에너지 절약 및 재활용 설비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투입 비용을 줄여 나가고, 특히 정보화 추진에 의한 물류 효율화를 시급히 달성해 연료유 낭비를 최소화해야 함
 - 가계는 에너지 과소비를 자제하고 에너지 절약형 제품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는 등 일상에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야 할 것임

(hsjung@hri.co.kr ☎ 724-4042)